



VALUE INVEST KOREA

2018년 04월 첫째주



얍컴퍼니



헤드플레이



로커스



선재하이테크



VENTURE STORY



사이렌오더, 삼성전자 빅스비와 연동하여 음성주문 서비스

■ 사이렌오더, 삼성전자 빅스비와 연동하여 음성주문 서비스

- 빅스비를 통한 주문 및 결제가능 음성서비스는 처음
- 개인의 취향에 맞게 시럽 및 휘핑크림 등 조절이 가능한 퍼스널 옵션의 간편 음성 주문
- 드라이브 스루 매장, 주차 가능한 매장 등 여러 타입의 매장 검색 기능 추가 제공

※ 빅스비 Bixby

- 삼성전자의 지능형 어시스턴트
- 사용자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- 사용가능기기 : 갤럭시 S8, 갤럭시 S8+, 갤럭시 노트 8, 갤럭시 S9, 갤럭시 S9+



코미카 ‘괜찮아요,우리는 천천히 가족’

■ 코미카 ‘괜찮아요,우리는 천천히 가족’

- 웹툰 ‘괜찮아요,우리는 천천히 가족’도 자폐증에 대한 인식전환을 만들어 낸 따뜻한 작품
-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특별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세상과 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순수하게 그림.

(실제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작가가 그린 만큼 현실도가 높은 웹툰)

- 곳곳에 자폐에 대한 설명과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

(실제 부부 작가의 장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해 제작됐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솔직한 내용이 담김)

- 너무 절망적이거나 무겁지 않은 공감 생활툰으로 부부 작가의 아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음.

-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인만화가 매니지먼트 지원 사업 선정 작품으로 현재 총 11화가 연재 중



‘사라진 밤’ 누적 관객수 130만명 돌파

■ ‘사라진 밤’ 누적 관객수 130만명 돌파

- 영화 ‘사라진 밤(감독 이창희)’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
- 박스 오피스 3위의 기록
- 누적 관객수 : 130만9,732명
- 김희애의 갑작스러운 등장, 이후 김강우를 의심하는 김상경 등이 보여주는 연기력은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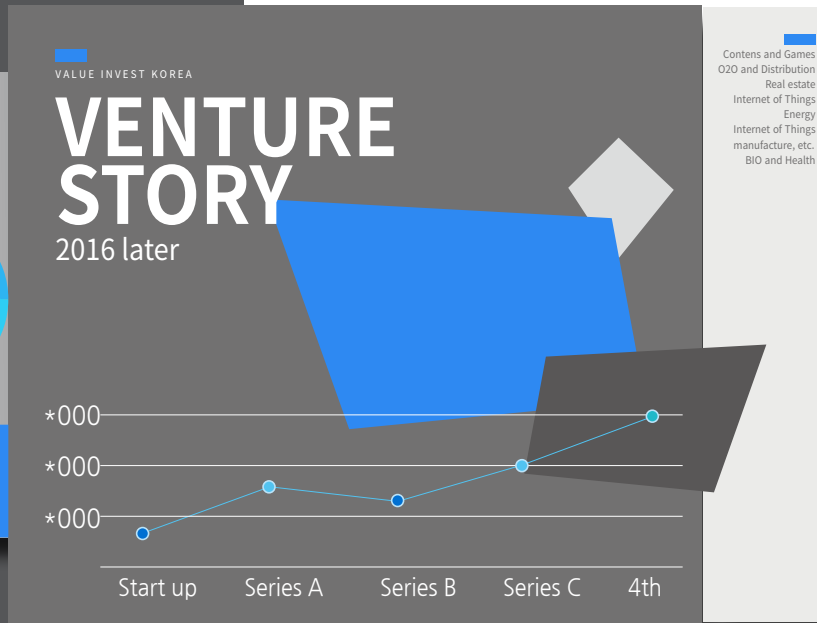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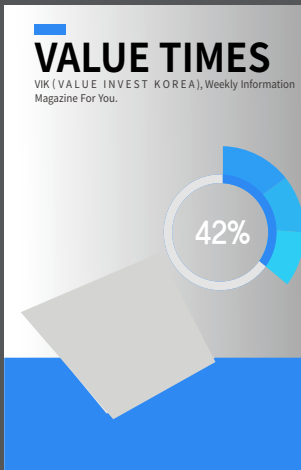
선재하이테크, 세창상사에 이온나이저 장비 공급

■ 세창상사에 이온나이저 장비 공급

- 세창상사 체코 현지기업에 반도체 생산 장비 약 40만달러 수출계약
- 세창상사의 체코 수출계약 장비 : 이온나이저(정전기 제거 장치)
- 선재하이테크가 세창상사에 이온나이저 장비 공급 계획

VALUE INVEST KOREA VENTURE STORY

제37회 2018.04.04



- 국내 벤처기업 성장 막는 법·제도 개선 시급
유니콘 236개사 중 한국 기업 3개 불과



유니콘기업

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, 설립 10년
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

미국 49.2%, 중국 27.1%, 인도 4.2%
순으로 80.5%를 차지

국내 벤처기업 성장 막는 법·제도 개선 시급

유니콘 236개사 중 한국 기업 3개 불과

- 유니콘(Unicorn) 기업 리스트에 오른 236개사 중 한국의 기업은 쿠팡·엘로모바일·L&P코스메틱 등 3개에 불과
- 한국은 1990년대 말 닷컴 열풍 속에서 네이버 넥센 엔씨소프트 카카오 등 신생 대기업이 탄생했으나 이후 내놓을 만한 성공 사례가 부족한 상황으로, 기업 수 및 기업 평균가치 면에서 스웨덴, 독일, 영국 등과 2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업종은 ‘공유경제’.
→ 미국의 우버가 ‘차량공유’라는 신개념 아이টে็ม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이를 벤치마킹한 중국의 디디추싱, 싱가포르의 그랩택시 등 차량공유 유니콘이 등장(공유대상도 자동차에서 자전거, 항공기, 오토바이 등으로 확대)
- 전자상거래를 주도하는 유니콘은 인도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플립카르트와 스냅딜, 중국의 음식배달 업체인 디엔핑, 미국의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처럼 내수시장 규모가 주요 성공요인
- 벤처 성공을 이끄는 미국, 중국, 인도의 경우 거대 내수시장이 있다는 공통점 외에 활발한 자금 유입(미국), 투자유치 외교(인도), 유망 스타트업과 전략적 동맹 형성(중국) 등을 성공 요인
- 국내 벤처 기업의 현실은 공유경제 사업 규제 및 벤처 기업 주당 52시간 근무 적용 등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막는 법·제도 환경, 창업자 경영권 보장이 어려운 환경(차등의결권 불허), 벤처 투자를 막는 대기업정책(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) 등 걸림돌 해결이 시급한 상황
-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“다양한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허용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미래 혁신경제를 선도할 벤처기업을 키워야 한다”며, “이를 위해 과거 규제중심의 기업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”고 강조